"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내일(15일)은 77주년 광복절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해방주일로 지킵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선교공동체 실행위원회에서 19일(금)-20일(토) 국내 교회(새터마을교회, 의탄교회, 용계리교회)를 방문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교장단연수회가 19일(금)-20일(토) '은혜의 동산 기독학교'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승호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아인 학생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3 호
2022년 8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참된 쉼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아서 각 처로 흩어지고, 다양한 레저와 휴식을 즐기면서 이 쉼을 누리려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온 후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거리 운전에, 불규칙한 수면, 격렬한 레저 활동 등 평소와는 다른 생활패턴이 신체에 무리를 주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요. 일상에 대한 회피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참 쉼을 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휴가철 사건 사고도 많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참된 쉼이란 무엇일까요?

새번역 성경에서 이 '쉼'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마11:29)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본인에게 오라고, 그럼 쉬게 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11:28)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안절부절 못하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했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 예수님만이 참 피난처요. 안식의 길임을 풍랑이 치는 그 밤에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이 실명되어가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릴리아 모리스여사의 고백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폭풍과 같은 두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모리스 여사야말로 참 쉼, 안식을 얻은 사람이 아닐까요?

신앙인에게 있어 쉼이란 일상을 벗어난 시간과 장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 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팔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참 안식을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친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참 쉼터는 오직 예수님의 품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팔을 의지하여 꼭 붙들고 싶어집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
<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신명기 29장
제목 : 하나님께서 호렙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00 342 393 588

1 하나님께서 호렙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해석: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적용: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2-9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의미
해석: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뜻이라고 고백/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적용: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예배,기도,말씀,찬양 등)
10-28 언약과 맹세의 효력
해석: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행위가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그 약속이 전해 지는 것임을 상기 시키는 것, 증명하는 것이다.
적용: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감사히 받아들이자.
29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
해석: 하나님께 율법으로 밝히 나타낸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적용: 주어진 책임(말씀에 순종, 신앙)을 다하자.

기다림과 균형에 대해

제가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상스키입니다. 회사 동료를 따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왠지 모를 거부감에 몇 번 거절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말만 되면 수상스키를 타러 가고 싶어 합니다.

수상스키는 처음 배울 때 물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트가 끌고 가며 생기는 부력에 의해 몸이 뜨는 순간까지 기다려야만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힘을 너무 쓰거나 먼저 서려고 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균형을 잡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강물을 엄청 마셨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물에 빠져 물을 좀 마시다 보면 정신이 없어 더욱더 힘이 들어가고 마음처럼 잘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물에 서는 감각만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타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산을 보면서 강에서 물놀이 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제가 수상스키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림과 균형에 대해서는 삶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리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침대와 하나 되어 보내는 시간 동안 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의 기다림과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균형을 잡고 잘 일어나 라이딩을 즐기듯 앞으로 시원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공동체 한대훈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100 : 1-3	인도자
*예배의 찬송	23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편 51 : 1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5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갈라디아서 2 : 15-20	설교자
성가대 찬양	평화, 그 사랑의 물결	테너 이나라 집사
설 교	" 그리스도인의 자유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582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516(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연갑 이윤순 / 봉헌위원 : 김이례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에도 바울을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율법에 다시 매이는 것을 경계하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들을 얽매는 율법으로부터, 죄인 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에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더욱 세워나가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영화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멋쟁이학교 〉

보배롭고 존귀한 멋쟁이 지수 엄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사야 43:4

덜 영근 언어들을 마른 땅에 심어 놓고 어찌할 수 없어 바라만보다,
하나님께서는 지수를 저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덜 영근 언어와 같은 남편
마른 땅 같은 나
어찌 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삶
맑은 산소와 충분한 비로 덜 영금도 메마름도 채우시는 그분

지수는 꾸러기 2년, 어린이 6년, 멋쟁이 6년을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지수가 학기말 면담 때마다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수는 공동체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학생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피드백은 훌륭한 학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지수는, 덜 영근 언어와 같은 아빠와 메마른 땅 같은 엄마를 기다려주고 언제나 객관적 판단을 잘하여 중심을 지켜주는 막내딸입니다. 가족 모두를 보듬어주는 지수가 있어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저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는 삼남매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비밀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 노래, 정서적 교감과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와 같은 공통분모의 수많은 이야기들, 도보여행, 지리산종주, 기숙사생활.. 너무나 많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들만의 공통분모에 덜 영근 언어와 메마른 땅은 가끔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 삼남매 덕분에 덜 영근 언어와 메마른 땅은
점점, 풍성한 언어와 촉촉한 땅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사랑방 공동체학교에서 키워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집 삼남매가 부모를 지켜주었네요.

이런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과 그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쟁이학교 6학년 최지수 학부모, 백성복 집사

다시, 사랑방공동체에서 만납시다

"부산에 한 번 가야지."

꽤 예전부터 여럿의 귀에 들리도록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집안의 막내가 나라의 반대편인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명절 등에 올라오기만 하는 수고와 심정을 생각해보자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계획이었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이 끝나고, 불꺼진 교육관 앞에서 막연히 휴가 기간에 부산에 가야지, 하고 떠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지 '부산에 간다' 이 단순한 명제 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무계획적 여행이었고, 그만큼 기대치 못했던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풍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가기로 했던 인원이 줄어가는 아쉬움과 슬픔 같은 것도 말이지요.

부산에 왔음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지하철 사방에서 사투리가 들렸던 때로부터 다시 포천에 올라올 때까지 중에서 인상깊었던 곳 중 하나로 부산시립박물관을 뽑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수기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부산에서 만나자!'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그 말 하나에 의존하여 눈물젖은 희망을 부여잡았던, 처참한 비극의 기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기서 이산가족, 생이별이라는 무거운 상실감을 보여주는 광경을 잠자코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막내, 그리고 외삼촌과 작별하고 다시 포천으로 올라오면서 그 옛 시절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짐에 큰 부담없는 관계들이, 옛날에는 다시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던 시기들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관계들이 더 소중하고 반가웠을 것이란 것도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속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을 말입니다. 아직도 미숙하지만, 이번에 얻은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사랑방공동체에서 만납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한복음 15장 4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국의 비 피해>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많은 비가 오고 있으며 또 많은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잘 지어져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기후가 일어나도록 지구를 험하게 사용해 온 인류의 죄를 돌이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각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광원>
   1) 동광원 언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2) 복음 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의 회복할 수 있도록,
   3) 해외 선교 및 다문화 공동체 지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휴가 기간>
   1) 공동체원[예배, 학교, 사역, 생활, 선교]들이 휴가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날씨, 환경,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오가는 길에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계속되었기도 하고 많기도 한 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 한 주였습니다. 공동체 곳곳도 배수로를 점검하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손을 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루터기 식구들은 뒤편 산에서 쓸려 온 토사를 정리하는 일에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반짝 나와줘서 주변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밭에 작물도 시기를 놓칠 수 없어 잠깐 비가 그친 중에 배추를 심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큰 비 소식이 있어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큰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